



“‘섹시퀸’ 이미지 행복한 축복이죠”

현아, 포미닛 해체 후 미니 앨범 ‘어썸’ 발표

“솔로 활동은 포미닛의 연장선”이라 생각

무대 100% 채워지기 전엔 다른 영역 도전 안해

가수 현아가 포미닛 해체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서운한 심경을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난 현아는 자신의 솔로 활동에 대해 “(포미닛의) 연장선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미닛 멤버로 7년간 활동한 현아는 그동안 ‘버블팝’ ‘멜팅’ 등 미니 앨범을 통해 이미 솔로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선보여왔다.

그동안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을 병행해왔으나 지난 6월 팀이 해체되면서 진정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됐다.

현아는 “포미닛에서 활동한 모든 것들이 과거와 지금의 저를 이어주는 다리로 있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보다 포미닛의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공개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어썸(A’wesome)’은 ‘섹시퀸’으로서 흔들림 없는 현아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앨범이다.

특히 타이틀곡 ‘어때?’는 현아를 통해 ‘빨개요’와 ‘잘나가서 그래’를 히트시킨 작곡가 서재우가 프로듀싱한 강렬한 힙합곡으로 신나는 비트와 현아의 개성 있는 보컬이 인상적이다.

현아는 “‘섹시 이미지’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섹시하다’, ‘현아는 서머퀸’ 이런 말들에 대해 한 3~4년 전만 해도 어려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리둥절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가 지날수록 부담보다는 그에 걸맞은 책임감이 든다”며 “‘섹시퀸’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신 만큼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관리에 소홀할 수 없게 된다. 무대에서도 더 에너지틱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다방면으로 신경 쓰게 된다”고 밝혔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는 행복한 ‘달란트’(재능)죠. 그에 대해 책임감은 느끼지만,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진 않아요.” 또 ‘실제로 본인이 섹시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대 위에 있을 때 딱 삼분용 정도로 섹시하다”며 현아는 수줍게 웃었다.

“평소에는 그냥 스물다섯 살 여자 느낌이에요. 팬들이 기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실제로 보면 실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웃음)”

현아는 영화 ‘곡성’에 천우희가 맡은 배역으로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던 일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현아는 “‘곡성’이란 영화가 너무 좋은 작품이라 덩달아 관심을 받게 됐다”며 “3년 전 나홍진 감독님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제안하셨는데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연기 욕심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현아는 “사실제가 겁이 많고 무대에 대한 욕심이 있다”며 “무대에 대해 만족도가 100% 채워지기 전에 (연기나 다른 영역에) 도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트러블 메이커’ 활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현아는 포미닛 활동 외에도 비스트의 전 멤버 장현승과 ‘트러블 메이커’로 유닛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장현승의 비스트 탈퇴와 현아가 속한 포미닛의 해체로 ‘트러블 메이커’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팬들의 관심이 몰려 있다.

현아는 “일단 제가 확실히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운을 뗐 뒤 “‘트러블 메이커’ 활동은 작곡가인 신사동호랭이가 곡을 만들어 우선 회장님께 들려주면 회장님이 그 곡을 아티스트에게 들려주고 컨셉트를 반영해 작업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소개했다. 아티스트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아티스트의 견해만으로 이뤄지는 활동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믿어주신 팬들께 감사”

성폭행 혐의 벗은 이진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혐의를 벗은 배우 이진욱(35)이 3일 “이번 경찰수사를 통해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엔에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이진욱을 끝까지 믿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씨앤코이엔에스는 이어 “이진욱은 앞으로 혼신의 노력으로 훌륭한 배우가 되어 좋은 작품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그동안 고소인의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으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대한 언론 대응을 자제하면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렸다”며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고소인에게 응분의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초 진술을 뒤집어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진욱을 무혐의로 불구속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유천 동생’ 박유환 사실혼 파기 소송 당해

성 추문에 휘말렸던 그룹 JYJ 박유천(30)의 동생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박유환(25)이 사실상 파기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3일 박유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범조계에 따르면 박유환은 A씨로부터 사실상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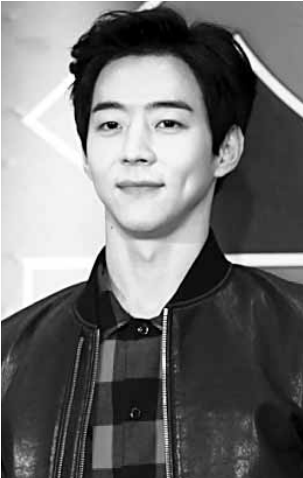
A씨는 지난 5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지난달 6일자로 이 사건을 조정예 회부했으며, 오는 9일을 조정기일로 잡았다.

씨제스는 “박유환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면서 “박유환 명예훼손을 막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씨제스는 박유환과 A씨와의 구체적인 관계 등에 대해 “상대가 일반인이고 박유환 사생활 부분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으니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유환은 2011년 MBC TV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으로 연기에 데뷔했다. 박유환은 이후 ‘천일의 약속’ ‘로맨스가 필요해’ ‘그녀는 예뻤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아쿠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	00 수상한 휴가(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재)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재)	00 MBC 경요뉴스 20 수목드라마 <W>(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여름특선 행복한 지도(재) 30 여름특선 영상앨범 산(재)		30 앙코르 MBC스페셜	20 kbc자연재해예방특집 자연재해 이렇게 대비합시다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정전 63주년 특집다큐 <다시 코리아로, 그들의 마지막 귀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세상발견 유레카 55 닥터365
3	00 중계방송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토론	00 자동차부족상 위기 2 30 TV 유치원	00 중계방송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	00 중계방송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자토론회
4	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발을 꿈꾸다>	00 여유만만	30 책갈피 요청 포보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안녕! 괴발개발 30 터닝메카드 V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발을 꿈꾸다> 55 베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여름특집 KBS 대기획 <디렉터스컷 퍼쉬플래닛> 55 숨터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원투로 애뜻하게>	00 수목드라마 <W>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한국무역70년 특집다큐 다시 한다! 수출강국 코리아	10 리우올림픽 기획 해피 투게더	10 문화콘서트 난장	10 자기야
12	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4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발을 꿈꾸다>	30 MBC 뉴스 24 50 2016 지구촌 어린이 돕기 희망 더하기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이티스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당동당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뽀롱이 09:00 곰디와 친구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달라졌어요 <돈 때문에 아내가 무시한다는 남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문동일의 불미 철판구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지식채널 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암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곰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나의 가족 미디어중독 탈출기>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여름의 선물, 알래스카 4부 뜨거운 대지> 21:30 한국기행 <하늘 아래 첫 동네 4부 정선장 두 어머니>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REALTIME 영감의 순간 1부> 22:45 다문화 고부열전 <시아머니와 천정아버지 사이에서 불편한 며느리>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살림의 여왕 호다 아줌마>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4일(음 7월 2일 戊午)	
 子	48년생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형상이다. 60년생 진행되어 왔던 일에 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 72년생 일차하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재고해야 할 것이다. 84년생 절실히 필요로 하였던 것이 다행히 생겨난다. 행운의 숫자 : 11, 27	 午	42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하다. 54년생 규칙적이고 계속 적이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66년생 복잡해지면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정황이다. 78년생 마음을 꼭 내려놓고 믿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5, 42
 丑	49년생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61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 만은 않는 법이다. 73년생 경험자의 지혜를 빌린다면 진척이 빠르다. 85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5, 32	 未	43년생 진중하게 견지한다면 마침내 성취하리라. 55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가 있을 것이니라. 67년생 길은이 순조로우니 저절로 흥겨운 코노레가 나올 것이다. 79년생 관한 헛발질에 그칠 가능성이 능후하다. 행운의 숫자 : 87, 94
 寅	50년생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62년생 단속적이어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74년생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만 타개할 수 있겠다. 86년생 공들여 왔던 것에 희망의 싹이 틈다. 행운의 숫자 : 51, 03	 申	44년생 평상시에 마음먹어 왔던 의지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56년생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경쟁력을 낳을 것이다. 68년생 처세와 만남의 순기능이 두드러진다. 80년생 예감하여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17, 46
 卯	51년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닥이 잡히리라. 63년생 바쁜 데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지혜롭다. 75년생 뚜렷한 주관과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87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5, 68	 酉	45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신경 쓸 필요도 없느니라. 57년생 과단성 있는 집행이 중하다. 69년생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81년생 우회적인 방법보다 직접적인 실행이 더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02, 13
 辰	40년생 우연히 생긴 것이 적절히 쓰이게 되리라. 52년생 기량이에서 비파 소리가 날 정도로 분주하겠다. 64년생 각자 달라서 일정하지 않으리라. 76년생 지속한다면 반드시 성사한다. 88년생 보류했을 때는 무리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43, 20	 戌	46년생 충동적인 판단 하에서 기인한다면 후회가 따르나. 58년생 의심스럽다면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만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70년생 양호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모양새다. 82년생 확실한 변별력이 절실히하다. 행운의 숫자 : 82, 45
 巳	41년생 오늘날 날이 아니니 무리할 필요는 없다. 53년생 상대의 충고를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자. 65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필히 조처해야 한다. 77년생 이루어지는 날이다. 89년생 애지중지하여 왔던 바의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7, 25	 亥	47년생 불합리한 요소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59년생 앞서간다면 역효과를 초래하리라. 71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어느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갖게 되리라. 83년생 신뢰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09, 4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